

28년 된 농산물품질관리원
진도사무소 신청사 건립
내년 준공·맞춤형 농정서비스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도사무소가 지어진 지 28년이 경과해 노후화된 진도사무소를 민원인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으로 새롭게 신축·이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진도사무소 청사의 경우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차 공간 등이 부족해 그동안 진도사무소를 찾는 농업인 등은 많은 불편을 겪었다.

작년 연말 국회에서 토지매입비 등 예산 27억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올해 설계에 들어간 뒤 내년 상반기 착공,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신청사로 입주할 예정이다.

신청사는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지며, 사무실과 민원 안내실, 농산물검사 감정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농관원 진도사무소는 새로운 청사가 신축되면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농업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신청사가 완공되면 맞춤형 농정 서비스를 위한 쾌적한 환경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군, 올해부터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 지원

해남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셋째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해남군에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다.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하면, 신청사 1인당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출생사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061-530-59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출산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전기차 지원금 신청하세요”

320여대 폐차·전기차 구매보조금 1대당 최대 1540만원 지원

강진군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 지원과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을 선착순으로 확대 시행한다.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국비를 포함한 5억 1천 2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320여 대의 노후경유차 폐차를 지원하고, 매년저감장치는 15대·5천 7백만 원을 지원한다.

또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확대하여 전기자동차는 25대에 대해 1대당 최대 1천 5백 4십만 원을 지원하고, 전기화물차는 15대에 최대 2천 4백 4십만 원을, 전기이륜차는 10대에 최대 1백 8십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폐차 지원의 경우 배출

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강진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매년저감장치는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강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강진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법인이다.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조기폐차 사업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매년저감장

치는 강진군청 환경측산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오는 2월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강진군 환경측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시 2개월 이내에 차량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2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환경측산과(☎061-430-3302)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정남진 장흥문화관광기행 특구 재지정

2023년까지 59만7571㎡ 365.02억 원 연장 승인



장흥군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정남진 장흥문화관광기행 특구' 재지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장흥군은 2008년 '전국 최초 문학기행특구'로 지정되어 2011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 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문학관광기행 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특구의 위상 정립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민설명회, 중앙부처(중소벤처기업부) 협의 방문, 현장 확인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2023년까지 597,571㎡에 365.02억 원으로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국문학사상 가사문학의 발원지로 이정준, 송기숙, 한승원 등 걸출한 현대문학 작가들을 배출했으며 국내 유일 안중근 의사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랑인 해동사, 이순신 장군이 활약한 명랑해전의

시발점인 회령진성, 정경달 장군을 기리는 반계사 등 유서 깊고 방대한 문학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장흥군은 기반 정비사업, 문화특구프로그램 운영, 문화특화협력 네트워크, 한국문학특구 포럼 등 특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4개 분야 12개 특구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왔다.

이번 기간 연장 승인으로 제와장 개방개선사업, 방촌 실감콘텐츠사업 등 4개의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장흥군의 문화관광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정남진 장흥문화관광기행 특구 지정이 연장됨에 따라 장흥군의 문화관광산업이 크게 발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천관산 문학공원, 천관문학관, 이정준 문학제, 문학특구포럼 등 다양한 문학자원이 장흥군민뿐 아니라 전 국민 곁에 형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 기자



완도군, 해양치유산업 이렇게 추진된다

해양치유센터 등 공공시설 연내 준공...해양치유프로그램 확대

완도군은 2021년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으로 정하고 4대 중점 분야를 집중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해양치유산업 기초 자원 조사 및 홍보, 해양치유 시범 프로그램 운영 등 산업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부터는 해양치유센터, 해양기후치유센터 등 각종 공공시설을 준공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얻는 산업화에 무게를 두고 추진한다.

중점 추진 분야는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 ▲해양치유 연계 프로그램 개발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이다.

먼저 해양치유산업 관련 주요 공공시설이 올해 준공될 예정이다.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해양치유센터가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해양기후치유센터 2월,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 7월, 해양문화치유센터 9월, 정산 해양치유공원이 11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군은 각각의 시설을 활용하여 진행될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며, 이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게 될 (가칭)해양치유공단도 10월 설립·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까지 1만 3천여 명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보였던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횡수를 늘려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12개 읍면을 찾아가는 해양치유 프로그램도 24회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치유 관광객들을 위한 해조류산업 관광 프로그램과 개인 맞춤형 숙박형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여, 2022년부터는 본격 운영하고자 한다.

민간투자 유치는 2030년까지 최종 유치 목표를 잡고 다양한 방면에서 추

진 중이다.

해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해양치유 호텔&리조트와 해양치유레지던스는 지난 2019년 미국 LA 투자협약 MOU 체결을 시작으로 재미 한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연내에는 확정될 전망이다.

다양한 체험거리를 갖춘 해양치유 레저리조트, 골프테마파크 등 건립에도 투자자가 나서고 있어 세부 사항을 조율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해조류 소재 해양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기초 소재 연구 및 제품 개발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될 해양바이오 공동협력 연구소를 2022년 2월까지 건립하여 관련 기업연구소 10개소와 스타트업 30개소를 유치하고, 해양바이오 분야 국제협력 연구 사업에 공동 참여하여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사료 등 제품도 개발한다.

아울러 250억 규모의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시설 구축 사업을 통해 바이오 제품 개발 및 생산 지원을 지원하여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2015년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해양치유산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며 "2021년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들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군은 해양치유산업과 2022년도 국제해조류박람회와 연계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즐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